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MONTHLY MAGAZINE

#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4년 12월호

VOL. 438

08 기획특집

공군수독오거서

18 공군이 만난 스타  
개그맨 김병만

31 아빠! 뭐해? 차량정비반

38 Pioneers up Above  
이윤철, 김원영, 김영재

50 담벼락 겨울

## COVER STORY

### 공군수독오거서 空軍須讀五車書

"무릇 공군인이라면 다섯 수레의 책은 읽어야 한다." 공군의 독서 활성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대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인문학적 병영문화를 정착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책 읽는 공군 장병들을 위한 「공군」 12월 호에서 만났습니다.





#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4년 12월호

VOL. 438

08 기획특집

공군수독오거서

---

18 공군이 만난 스타  
개그맨 김병만

31 아빠! 뭐해? 차량정비반

38 Pioneers up Above  
이윤철, 김원영, 김영재

50 담벼락 겨울



8



18



31



40



48



표지(앞) 김낙윤 상사와 딸 김영서 사진 | 상병 김지완 제호디자인 | 상병 김지완  
표지(뒤) 개그맨 김병만 사진 | 중사 고미숙

발행일자 2014년 12월 1일(통권 제438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최차규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중령 이상규, 소령(진) 이승호  
기획·편집 대위 이동혁, 중사 고미숙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December 2014 Volume 438



## • 공군IN

공군IN Fitness	6	겨울철 건강에 좋은 음식
법률산책	7	음주운전
기획특집 1	8	공군수독오거서
기획특집 2	14	2014 비행단 Hot Clip
공군이 만난 스타	18	개그맨 김병만
포토프레임@AF	22	11월의 공군참모총장 동정
Airforce Monthly	24	11월의 공군소식
공감 엿보기	26	급시니스트의 본격 공군 옛날 이야기
아빠! 뭐해?	31	작사군무지원단 수송대대 김낙윤 상사
천상아들	34	제10전투비행단 김진국 병장
공군은 나의 힘	36	예비역 소령 김관수

## ◦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38	이윤철, 김원영, 김영재
Airpower Report	40	대만 IDF 징귀

## ◦◦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42	마다가스카의 펭귄
트렌드가 보인다	44	아웃터
Preview	46	12월의 추천영화 · 문화행사
Air-Supply	47	마왕을 보내며

## ◦◦ OPINION

생각하는 그림	48	가깝고도 먼 황금까지의 거리
담벼락	50	겨울
책마을	52	열하일기





## 겨울철 감기에 좋은 음식



### ☕ 목이 아플 때 ▶ 대추와 생강

감기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는데 생강이 대표적이다. 생강은 가래, 기침, 감기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대추는 이노작용과 함께 기침을 멎게 하는 작용을 한다. 대추와 생강을 함께 차로 끓여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뜨겁게 마시면 효과적이다. 단, 생강 껍질은 차기 때문에 생강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하며,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는 생강 향이 너무 강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 ☕ 해열과 살균작용·목이 아플 때 ▶ 매실

매실의 유기산은 목감기 증상에 좋은 작용을 하며, 피로의 산물인 젖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매실은 해열 및 살균·해독 작용이 있어 편도선염이나 감기, 편도선염으로 인한 열도 푹 떨어지게 하고, 부은 목도 가라 앉혀준다.

### ☕ 기침이 날 때 ▶ 은행, 도라지

은행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은행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을 먹는 것을 피한다. 도라지는 당분과 섬유질, 칼슘과 철분이 많은 알카리성 식품으로 기침 감기에 효과가 좋다. 기침이 심하고 목이 부어 삼키기 어려울 때는 도라지 달인 물을 마시거나 입 안으로 헹구어도 좋다.

### ☕ 일반적인 감기 증세, 기침 날 때 ▶ 무

무는 비타민 C가 많아 일반적인 감기 증세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점막의 병을 고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끊이지 않고 기침이 자주 나올 때 좋은 효과가 있다. 풍부한 비타민 C와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무는 가래가 끊이지 않고 기침이 자주 나올 때 먹으면 잘 듣는다. 무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껍질 채 조리하는 것이 좋다.

### ☕ 목의 염증, 열이 날 때 ▶ 배

배는 해열작용이 있어 열을 내려주고, 가래를 삭혀주기도 한다. 배즙은 목의 염증에 효과가 있다. 감기를 앓게 되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열이 많이 나게 마련인데, 그래서 열이 많은 감기나 목이나 폐의 염증이 있을 때 배즙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AF**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음주운전이란 운전자가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을 뜻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며,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 ▣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률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1% ~ 0.2% 징역 6월 ~ 1년 또는 300만원 ~ 500만원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징역 1년 ~ 3년 또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
- ▲ 측정거부 시 징역 1년 ~ 3년 또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까지는 1회 적발 시와 동일하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나, 3회 적발 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징역 1년 ~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거나, 부대 내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과음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

우리 군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계몽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나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 공군 장병들도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근절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AF



# { 독서 활성화를 통한 인문병영문화의 정착 }

## 책 읽는 공군

두보의 시에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인쇄기술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섯 수레라고 해봐야 현대의 종이책으로 치면 놀랄 만한 양은 아닐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 직접 책을 읽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책은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 Special Theme



「책 읽는 공군」이란 장병들로 하여금 '독서 붐'을 조성해 독서를 권장하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군은 병영도서관의 신간도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북 콘서트와 같이 신세대 장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만한 독서 캠페인을 병행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공군 내 인문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다. 인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공군인 육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부대 인근의 도서관·박물관·문화유적 등과 연계해 인문강연과 현장탐방이 결합된 형태의 체험형 인문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2014 병영도서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 { 제1전투비행단 병영도서관

# 오거서 五車書

제1전투비행단의 병영도서관 오거서(五車書)를 찾았다. 2014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병영도서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명실공히 공군 최우수 병영도서관이다.

여타 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던 선봉도서관이 북카페 스타일의 오거서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2013년 말경이다. 시내 커피숍에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병영도서관에도 적용해 보자는 아이디어에 따라 부대에서 접근성 높은 건물 하나를 정해 리모델링했다. 부족한 장서는 도서기증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지역 도서관들과 MOU를 맺어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오거서 개장에 따른 장병들의 독서 열풍은 기대 이상이었다. 우선 책 대출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우들과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가 나갈 땀 손에 책을 들고 갔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서고와 넓은 열람 공간이 신세대 장병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열람실에는 온돌을 깔았다. 오거서는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병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거듭났다.

# Special Theme

기획특집 ①



## 오거서의 이유있는 흥행, 문화가 있는 저녁

해질 무렵, 오거서를 찾는 장병들이 부쩍 늘었다. 이유는 오거서에서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커피스쿨, 통기타, 독서코칭, 캘리그래피, 바둑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 강좌마다 장병과 군무원, 관사가족 20~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도서담당 유난희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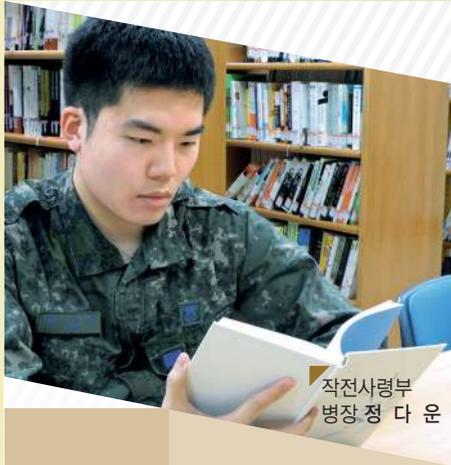
저희 오거서는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장병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비행단의 독서 붐을 조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책은 곧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단에 근무하는 동안 저희 오거서를 꼭 한 번 들려주세요. \*\*\*

### 독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독서동아리 정현원 병장

책을 읽으면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작가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원래 군에 입대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단 독서동아리에도 참여했고요. 마침 오거서에서 매주 독서코칭이 열려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두 권 정도 읽는 거예요. 저는 독서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우들과 운동을 마치고 나면 약간의 자투리 시간이 있는데요. 가까이 책을 두고, 그럴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2014 공군 우수독후감 선발대회 최우수작  
김훈 「칼의 노래」

## 칼끝의 소실점에서, 바다의 지평선으로

### #0. 칼집

책은 그 자체로 소통을 증명한다. 인간관계와 비슷하다. 나는 책을 보면 첫 인사로 표지와 제목부터 살핀다. '그'와의 만남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표지는 그저 붉다. 우측 위 검은 제목은 세로로 적혔다. 아래의 흰 파도 그림은 가로로 뻗는다. 선들은 시뻘건 핏빛 위에서 수직으로 결을 이룬다. 무섭도록 극명한 대비는 간결하며, 강력하다. 제목의 글자 크기는 제각각이다. '칼'과 '노래'는 큰 반면, '의'는 작다. 글자의 윤곽을 따라 가상의 선이 생긴다. 한글의 조형미적 특징이라. 큼직한 '칼'과 작은 '의'는 긴 역삼각형 구도로 긴장감을 준다. 반면 '노래'는 안정된 삼각형 꼴이 된다. 백미는 가운데 띄어 쓴 공간이다. 두 삼각형이 모래시계 형태로 만나며, 원근법처럼 빈 곳의 한 점에 시선이 모인다.

본문을 빌려오자.

*“칼자루쪽에 눈을 대고 칼날의 끝쪽을 들여다보았다. 칼이 끝나는 곳에 한 개의 점이 보였다. 그 점은 쇠의 극한이었다. 칼은 그 소실점 너머로 사라지는 듯했다.”*

제목에도 소실점이 있다. '칼'과 '노래' 사이로, 시선은 소멸하며 묻는다. 왜 표지는 붉은가. 왜 칼인가. 왜 그는 노래하는가.

### #1. 발도拔刀

책은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한다. 현대로 따지면 병영일지쯤 되리라. 총무공은 실제 이런 식으로 적었다.

*“모일 모일. 군관이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 밤에 바람이 불었다.”*

도대체 수사가 없다. 그는 사실만으로 글을 잇는다. 날씨는 수군에게 중요하니 쓴다. 명료한 군인의 언어다. 빠뜨리지 않지만 쓸데없는 감상도 없다. 책은 이 언어를 따른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첫 문장이다. 작가는 '꽃은'과 '꽃이'를 놓고 며칠을 근심했다. '은'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다. 떠난 이와 상관없이 핀 꽃은 무심해서 더 서럽다. 반면 '이'는 냉정한 사실뿐

이다. 저자는 둘 중 객관성을 선택했고, 고집한다. 책의 문장은 삼엄하다. 조사 하나를 고민하던 장인정신은 강직하게 글을 밀고 나간다. 내용은 간결하다. '백의종군부터 노랑해전까지의 이순신'이다. 결말도 예측가능하다. 공은 노랑에서 전사했다. 복선이나 서술적 트릭은 없다. 김훈은 화려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적지 않았다. 오히려 문장을 갈고 갈아 한없이 날카롭게 만든다.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글은 예리하다. 칼과 같은 질박한 단순성에 장려한 수사들은 힘없이 베어진다.

1인칭인 문장은 대부분 짧게 툭툭 치고 들어온다. 허나 가끔 길고 감각적인 묘사로 사실성을 높인다. 완급의 조절이 절묘하다. 반대로 대화는 파편화되고 극소화된다. 결국 산문보다 운문에 가까운 느낌이다. 겉으로는 전쟁의 일기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운율이 느껴지는 '시', 즉 '노래'로 승화한다. 칼과 같은 노래, 칼의 노래다.

### #2. 녹슨칼

때는 정유년. 이순신은 함정이 분명한 부산으로 진격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어명을 어긴 죄를 들어 그를 고문한다. 이때 한양에 조선 함대의 전멸 소식이 전해진다. 한 표현이 눈에 밝힌다. '으깨지다.' 통제영은 왜구에게 으깨졌고, 공의 몸은 형틀에서 으깨졌다. 다급한 조정은 으깨진 장군을 으깨진 남해로 보낸다. 백의종군하며 내려오는 그의 눈에 목 없이 으깨진 시체들이 비친다.

돌아온 이순신은 절망적인 개인이다.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통제사는 자주 식은땀에 젖어 잠을 깬다. 사각대는 소리 때문이다.

*“바람의 끝자락에 실려, 환청인가, 누에고치에서 실 풀려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싶었다. (...) 뒤채는 새벽에 그 환청은 내 피폐한 연안으로 다가오는 수천 수만 적선들의 노 젓는 소리로 들렸다. (...) 다시 귀 기울이면, 압록강 물가 의주까지 달아난 조정으로부터도 물려왔다.”*

이순신의 적은 바다에만 있지 않았다. 부하는 도주했다. 조정은 지원은 커녕 모략만 무성하다. 왕은 그를 불신한다. 총무공은 왜적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홀몰로 받아내야 했다. 절대적 고난 앞에

# Special Theme

인간은 고독하다. 기댈 곳도 없다. 그는 절망적 삶을 내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지도 않는다. 단지 한없는 허무를 '살아나갈' 따름이다. 이는 공허한 희망이나 싹된 기대와는 다르다. 그보다는 담담한 현실 수용에 가깝다. 현재의 자기를 받아들이고, 힘겨운 세상을 칼처럼 베어나간다.

### #3. 칼이 아닌 칼

책은 소설이나 소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칼처럼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순신은 역설적인 사람이다. 본편은 그의 건강 문제를 계속 보여준다. 잠들면 오한에 깨고, 어깨의 총상에 앓는다. 그러나 그는 바쁘다. 수군을 모으고 선박을 건조한다. 첩자를 보내며 적을 경계한다.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들을 이끈다. 그는 아프다. 하지만 아파서는 안 된다.

이순신은 끊임없이 심한 자가당착을 겪는다. 아들을 잃고도 슬픔은 보이지 못하고 창고에서 숨죽여 운다. 훗날 아들을 죽인 일본 무사를 생포한다. 그는 적을 죽이고 싶은 복수심과,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젊은 무사에게 느끼는 동정심 사이에서 번민한다. 결국 직접 적을 벤 그는 홀로 바다를 걷는다. '총체적인 적'에 대한 증오와, '개개인으로 와 닿는 적'에 대한 연민이 섞여 그를 눈물짓게 한다. 그는 영웅이며, 영웅이 아닌 '인간'이다.

책의 큰 분기점인 명량해전에서 모순은 극대화된다. 임금은 끈질기게 의심한다. 물레 병사를 키우지는 않는지, 역모를 꾀하지는 않는지. 그를 의심하나 그를 죽이면 조선이 위태롭게 살려둔다. 그는 왕의 칼과 적의 칼 사이에서 오갈 곳이 없다. 끝내 왕은 쇠약해진 수군을 폐하라 명한다. 이에 이순신은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리고 울돌목으로 진격한다.

“...이제 수군을 폐하시면, 전하의 적들이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멀리서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수군이 비록 외롭다 하나 지금 신에게 아직 전선 열두 척이 있사온즉, 신의 몸이 살아 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조선을 알보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존재라 주장한다. 강력한 거북선이나 수많은 병력은 없다. 그의 말따마나 “내가 가진 한 움큼이 조선의 전부”다. 이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 하나로, 절망을 돌파해야 하는 자의 순결한 살기다. 그는 고작 열두 척의 배로 일본 전 함대와 싸워 이긴다. 이순신은 역설적이다. 그는 역설적이어야만 했다.

### #4.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전쟁은 시작만큼 급작스레 끝났다. 도요토미는 전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죽었다. 이순신은 적이 돌아가는 바다에서 섬멸할 작정이다. 하지만 공격도 쉽지 않다. 명나라는 철수하는 왜장과 협정을 맺고 보내주려 한다. 대가로 일본군이 내놓을 수급은 사실, 조선 백

성들의 머리다. 조선의 목숨을 바치고 왜는 후퇴하고 명나라는 공을 세운다. 이 지독한 계산결과를 그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순신은 노랑 앞바다로 향한다.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공은 진실로 적을 멸하기만을 바랐으리라. 그의 칼에서 직접 써내려간 글자가 고요히 울부짖는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一揮掃蕩 血染山河’ 종사관과의 짧은 대화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물들이 일여자가 깊사옵니다.
- 그러하냐? 염은 공고이다. 옷감에 물을 들이듯이, 바다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 적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순신은 전쟁의 끝과 함께 죽기를 바랐다. 허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원수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바다로 나아간다. 바로 표지가 붉은 이유다. 적의 피로 물들인 남해바다. 그가 바라마지 않던 순결한 증오가 파도친다. 노랑에서 마침내 적을 쳐부순 그는, 자연사와 같이 고요하게 사망한다. 붉게 물든 바다 위에서.

### #5. 다시 노래하는 칼

왜 칼의 노래인가. 칼은 곧 형상화된 이순신을 의미한다. 제목인 「칼의 노래」는, 결국 「이순신의 노래」다. 그가 마음속으로 유언을 남기며 사망하는 마지막 장의 제목은 ‘들리지 않는 사랑 노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의 칼은 마음속에서 자주 ‘운다.’ 그가 칼이며, 그가 노래다.

글을 읽으면 칼을 쓰다듬는 느낌이다. 쇠는 처음 손대면 차갑다. 베일까 두렵기도 하다. 책도 마찬가지다.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문장은 읽기 까다로워 조심스레 넘겨야 한다. 하지만 금속에 손을 대 보라. 체온이 전해져 따뜻해진다.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인간 이순신’, 따뜻한 칼이 느껴진다.

이순신은 칼과 같은 생을 살았다. 김훈은 그 칼을 노래로 버려내었다. 이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절망적이고 고독한 삶은 어쩌면 인간의 숙명일지 모른다. 누구나 고통스럽고 모두가 외롭다. 그는 절대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힘을 준다. 나 또한 힘겨운 삶을 담담히, 그리고 당당히 견디겠다. 내 안에서 노래하는 칼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집중된 화력으로, 세상의 정면을 향하여.” 모순되게도, 책의 서문으로 글을 마치리.

“사랑이여, 아득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의 함대는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 내 마지막 바다 노랑으로 오라. 오라, 내 거기서 환줄기 일자진—字隙으로 적을 맞으리.” **AF**



2014 갑오년 청마의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15년 새해를 맞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행기',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공군의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비행단인데요. 2014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 해 동안 비행단에서 있었던 가장 뜨겁고 흥미진진했던 소식을 한데 모아 보았습니다. 그럼 올 한 해 공군 비행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Let's Go~!!!

Hot Clip ①

제1 전투비행단, 아트갤러리

흰 벽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림들,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네모난 전시장 안 곳곳에 놓여있는 나무벤치. 격조 높은 이 아트갤러리, 혹시 서울 어딘가에 있는 그런 핫한 갤러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에 위치한 '1st 아트갤러리' 랍니다.

'1st 아트갤러리' 는, 고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장병들의 힐링을 위해 올해 1월에 조성된 공군 최초의 소규모 복합전시공간입니다. 장교회관 내 휴게실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LED 레일조명과 white 벽면 등 어느 미술관 못지않은 전시환경을 갖추고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동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1st 아트갤러리' 에 여러분도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 Special Theme



**Hot Clip ②**  
**제18전투비행단, 제설작전**

2014년은 18전투비행단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한 해였습니다. 하늘에서 폐기물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2월 6일 오후였습니다. 큼지막한 함박눈으로 시작한 폭설은 무려 6일을 쉬지 않고 내렸고, 약 2m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8전비의 장병들은 그냥 폭설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체식 제설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문 제설장비와 꾸준한 제설 작업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눈이 20cm를 훨씬 웃돌며 쌓인 눈을 빠르게 처리하고 부대 주변으로 대민지원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제설능력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Hot Clip ③**  
**제5공중기동비행단, 화지대 헌혈증 기증**

올해 5공중기동비행단에서는 비행단 장병들의 가족과도 같은 하나임을 보여준 따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화생방지원대 소속 김현식 상병의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김 상병은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 드렸습니다. 김 상병의 이런 모습을 본 우리 5비 장병들은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345장의 헌혈증을 모아 김 상병에게 전달하며 뜨거운 전우애를 나눴습니다.



**Hot Clip ④**  
**제3훈련비행단, 21만 시간 무사고 달성**

제3훈련비행단은 조종사 양성 과정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많은 수의 학생조종사들이 매일같이 비행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 비행단은 비행 횟수도 많고 정비지원 수요도 많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비행관리와 세밀한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요. 올해 3훈련비행단은 '기록의 비행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해에 수립된 기록으로 비행단 21만 시간 무사고 비행, 215대대의 1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김부록 원사의 1,600회 무결함 비행지원, 217대대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KT-1 주기검사 2,000회까지 다양한데요. 하나같이 완벽한 임무 수행이 아니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어떤가요, 자랑할 만하죠?



**Hot Clip ⑤**  
**제17전투비행단, 천성병사자치존**

병사들에게 가장 먼저 병사 자치 공간을 내어준 제17전투비행단의 천성병사자치지역은 선진 병영에 모범되는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유공간인 학생회관이 있다면 17전비의 병사들에게는 천성병사자치지역이 있습니다. 병사 동아리방을 비롯하여 피복 재활용 센터, 병사 노래방, 공연 연습실까지 없는 게 없는 온전한 병사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수칙을 만들고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입대 전에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Hot Clip ⑥**  
**제16전투비행단, 한 지붕 두 가족**

2014년 6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공군에 유례없는 깜짝 소식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공군과 해군이 한 기지 내에서 이른바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해군 6전단 61전대가 지난 6월 27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해군의 해상초계기 P-3와 공군의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A-50이 함께 작전함으로써 공군과 해군 상호 간 합동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TA-50의 엔진에서 뿜어낸 경쾌한 제트음과 P-3에 장착된 4개의 터보프롭 엔진에서 나오는 웅장한 엔진음은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Hot Clip ⑦**  
**제15특수임무비행단, 헌병대대 재규어타임즈**

일과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저녁시간, 15비 정훈공보실 A3 프린터에서 낫신 신문이 끊임없이 인쇄되어 나온다. 야근의 냄새를 맡고 초조해진 공보장교의 채근에도 아랑곳 않고 곳곳이 뿜어나오는 신문을 정리하고 있는 두 병사의 전투복 오른쪽 가슴에는 헌병 특기마크가 붙어있다.  
헌병대대 자치 언론사 "재규어 타임즈"는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밝고 건강한 병영문화 만들기'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출범되었다.  
강하고 용맹하면서도 조용하고 날렵한 중남미의 맹수 재규어를 스스로의 상징으로 삼은 15비 헌병대대답게, 신문 "재규어 타임즈"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 존재감을 뽐내길 기대해본다.



**Hot Clip ⑧**  
**제11전투비행단, 폭염엔 팔빙수**

여름이면 매년 지독한 폭염으로 소문난 11전투비행단 장병들은 툭툭튀는 아이디어로 올여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활주로의 뜨거운 열기로 고생하는 최종기회점검반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더위에는 더위로 이겨라라는 말도 좋지만... 더울 땀 시원하게 땀기 마련이죠? "팔빙수 드시고 하십시오." 11전비 헌병대대장 류연주 중령은 가장 더운 오후시간대 경계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해 여름기간 동안 매일 팔빙수와 냉커피를 제공해 장병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습다.

**Hot Clip ⑨**  
**제20전투비행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20전투비행단 올해의 최고 핫이슈는 바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아니겠습니까?  
9월 25일(수)에 20전비 F-16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미국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10월 21일(화) 한 달여 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무사히 귀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군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 Special Theme

Hot Clip ⑩  
제19전투비행단, 하늘사랑 축제

2014년 9월 27일, 19전투비행단이 통 크게 열었습니다. 으레 하는 단순한 개방이 아닙니다. 부대 안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통제와 규율이 중요한 군대도 사람냄새 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하늘사랑 축제', 스페이스챌린지와 블랙이슬 에어쇼를 비롯한 대규모 특별 항공과학 전시체험관 등이 총 출동! 약 7,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방문하며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또는 남편의 아내),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가 사는 제19전투비행단을 제대로 알렸습니다.



Hot Clip ⑪  
제10전투비행단, 경기항공전 성료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공군과 함께하는 경기항공전이 개최됐습니다. 짹짹!!! 일반인들이 공군 수송기, 헬기, 소방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 탑승 체험 기회를 가지며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74대의 항공기와 346점의 공군 무기가 등장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였으며, 경기항공전 행사 중 입장권 최대 규모 기록으로 4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Hot Clip ⑫  
제8전투비행단, FA-50 전력화

대한민국 동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제8전투비행단! 전투중심의 최강의 전투비행단 건설을 위해 전 장병이 뚝뚝 땀 흘려 대한민국의 평화의 위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올해 제8전투비행단의 핫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산 신형전투기 FA-50 전력화였습니다. 1949년 항공기가 한 대도 없었던 대한민국에 65년이 지난 올해 드디어 국산전투기가 전력화된 것입니다. 원주비행단의 기치에 꼭 맞는 FA-50 전력화! 우리 비행단 모든 장병들의 큰 자랑입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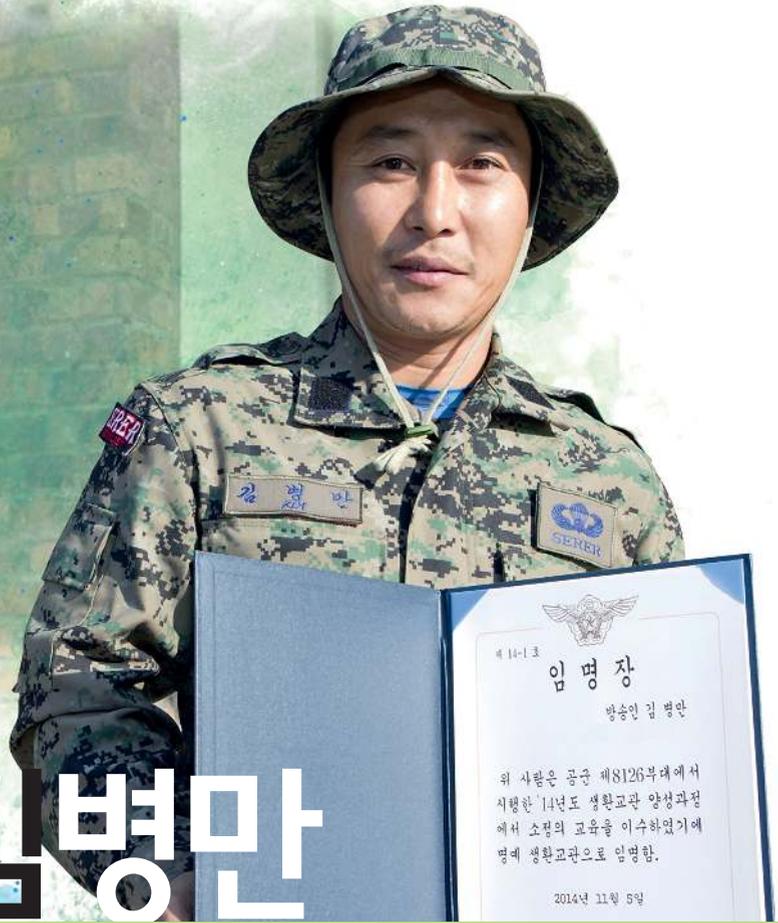
공군IN  
공군이 만난  
스타



글·사진 제공  
SM C&C

공군이 만난

# Star 김병만



**[AF]** 김병만님 반갑습니다.

**김병만** 대한민국 하늘을 책임지고 계신 존경하는 공군 장병들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글의 달인' 족장 김병만입니다. SBS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을 통해 공군 생활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공군과 인연이 되었네요.

**[AF]** '김병만' 하면 개그콘서트의 '달인'이죠. 정말 재미있었어요. 혹시 그 달인이 몇 종류나 되죠?

**김병만** 3년 11개월 동안 286편에 출연했습니다. 달인 코너를 통해 많은 도전을 했던 거 같아요.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들도 있고, 배운지 한시간만에 성공을 한 것들도 있어요.



[AF] 가장 기억에 남는 달인을 꼽는다면요?

**김병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달인은 생수통을 입으로 흡입했던 적이 있어요. 빨대를 꽂아서 수박도 빨아먹고요. 시청자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일본의 유명 개그맨 시무라 켄이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초칭을 해주셔서 일본 연예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계기로 일본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하게 됐네요.

[AF] 요즘 출연하시는 '정글의 법칙'과 '즐거운家' 두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사는 모습을 다루는 것이지요.

**김병만**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글의 법칙'에선 먹고 사는 모습이 단순한 의식주가 아닌 '생존'이라는 도전이 있고요. '즐거운家'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가족들의 의식주 도전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함께 밥 먹는 즐거움, 기쁨을 전달하고 싶은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AF] 손재주가 좋으시다더니, 놀랍게도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집까지 직접 지으셨어요. 김병만님의 도전은 어디까지 입니까?

**김병만** 과찬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직접 집을 짓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요. 그러다가 진짜 집을 지어보면 어떻게 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하지요. 지금도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AF] 이번 공군 생환훈련이 앞으로 '정글의 법칙' 촬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병만** 네 물론입니다. 꼭 한 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생환교관들이 실제로 배우는 기본적인 불 피우기부터 은신처 구축, 음식물 구득법 등을 배웠는데요. 정글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SBS '정글의 법칙' 의공군 생환훈련 편은 2015년 1월 방영 예정임.





**[AF]** 본인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만**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사랑해주시는데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매력이라면 글썽, 동네 있을 법한 옆집 아저씨 같은 매력이 아닐까요? 방송에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AF]** 김병만님에 대해 노력하는 개그맨, 감동을 주는 개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중에게 어떤 사람(혹은 개그맨)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김병만**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떤 곳에 있는지 노력하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웃음) 저는 사람들에게 웃기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희극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대중들이 저를 생각할 때 웃음이 나면서도 감동과 희망적인 메시지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AF]**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김병만** '열심히 하면서 잘하자' 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해요.

**[AF]** 끝으로, 김병만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군 장병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병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공군 장병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공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 **[AF]**

# 책마을 서평 공모 안내

월간「공군」의 책 추천코너 '책마을'에 공군장병과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분 량 1,500자 내외 (200자 원고지 8매)

접수처 공본 홍보과 (문의 : 042-552-6943)



\* 채택된 원고는 월간「공군」에 게재하며, 소정의 원고료(또는 기념품)를 드립니다.



## 공군 정보통신 발전 국제세미나

참모총장은 11월 6일, 공군회관에서 '초연결사회에서의 공군 ICT 신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2014 공군 정보통신 발전 국제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멀지 않은 미래는 사물과 사람, 기기, 데이터 등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며, 안보환경의 많은 변화와 함께 국가방위에 있어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ICT산업 발전과 미래 공군력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ICT와 미술(ART)을 접목한 '제1회 공군 아이디어미술 학생작품 공모전'의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대상 수상한 대전 신탄진중학교 정민호 군을 비롯한 14명의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 공군력 발전 간담회



참모총장은 11월 5일, F-X 및 KF-X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방사청, ADD, KIDA 등 주요기관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등 50여 명과 한자리에 모여 '공군력 발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F-X·KF-X사업은 공군만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래 국방력 건설의 핵심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이 '희망의 새 시대' 구현을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 주한 외국 무관단 초청행사



참모총장은 11월 7일, 공군회관에서 '주한 외국 무관단 초청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28개국 주한 외국 무관과 가족들에게 상호 군사교류 활성화와 협력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테러 예방과 재난 복구에 각국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친구가 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AF**



# AIR FORCE MONTHLY

December, 2014

MONTHLY MAGAZINE VOL.438

www.airforce.mil.kr



## 국산전투기 FA-50 전력화



FA-50 전력화 기념식이 10월 30일, 원주기지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정부와 군 주요인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로서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공대공·공대지 미사일과 일반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는 물론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지능형확산탄(SFW)과 같은 정밀유도무기 등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국산전투기 ‘FA-50’이 영공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실전에 배치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오랜 염원이 오늘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군-공군역사재단  
**하늘사랑문학상 시상식**

공군은 11월 4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하늘사랑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하늘사랑문학상은 공군과 공군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해 공군과 항공우주 분야, 공군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성작가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이다. 공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군, 하늘, 우주, 공군장군 초기역사 등을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세 부문으로 작품을 모집했다. 총 450명의 참가자들이 1140편의 작품을 보내왔으며, 부문별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해 각각 공군참모총장 상장과 상패 및 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이 수여됐다.



191전술훈련비행대대  
**21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공군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191전술훈련비행대대는 11월 6일, 21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시상식을 가졌다. 191대대는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전술전기훈련, 각종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적의 전술에 대한 대응능력을 신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191대대는 임무특성상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운용할 뿐만 아니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 상황을 연출하는 등 일반 비행훈련에 비해 위험한 기동이 많기 때문에 이번 무사고 기록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1월 7일 성무문화관에서  
**2014 공군사관학교 통일포럼**

공군사관학교는 11월 7일 성무문화관에서 '2014 공군사관학교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 전략',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군(공군)과 사관생도'라는 3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생도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8전투비행단  
**고판화 체험 템플스테이**

공군18전투비행단 장병들은 11월 5일부터 1박 2일 동안 '장병을 위한 숲속 판화학교'에 참가했다. 장병들은 원주시 치악산에 위치한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을 찾아 목판화 만들기, 발우공양 체험, 아침산행 및 명상체험 등 정서순화와 문화교양 증진을 위한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체험했다.



재경근무지원대대  
**2014 대한민국조경문화박람회 금상**

공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시설중대팀 강희혁·최영한 병장, 권용호 일병이 서울시와 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조경문화박람회'의 '불후의 정원(Temporary Garden)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인해 삭막해진 도심 내 군 부대와 사회 간소통의 의지를 담아낸 '담벼락 그 사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조경학과와 건축공학과 재학 중에 입대해 팀원들은 평소 서로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계발을 해 오다 이번 대회에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F**

제7항공통신전대  
**군 가족 허브농장 체험**

공군7항공통신전대는 11월 8일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군 가족 행복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7전대 군인가족 34명은 안성시에 있는 '허브와 풍덩이 농장'을 방문해 허브심기, 곤충표본 만들기, 미니운동회 등 다양한 현장학습을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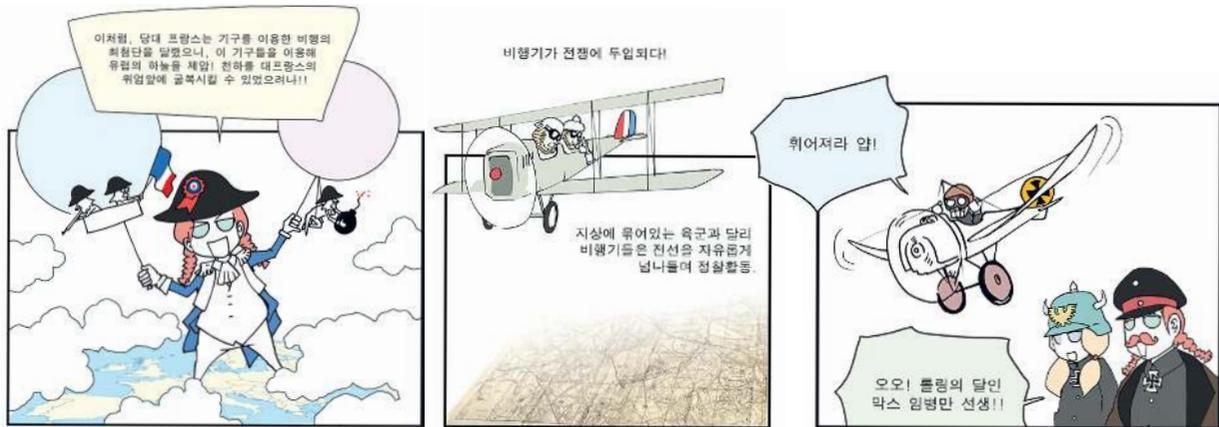


# 공감 옛보기



<http://afplay.kr/1465>

## 굽시니스트의 본격 공군 옛날 이야기 만화



프랑스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기술을 쪽 빼먹고 뒤통수 시전.

이후 프랑스 항공계는 각종 항공 행사를 벌이며 군사항공의 필요성을 홍보.

드디어 1910년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이용한 육군 항공대를 창설.

이는 유럽 각국에도 신선한 자극이 되어,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프랑스의 항공자원을 끌어와 군사 항공력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 제5화 '항공전의 서막' 중에서

'본격 제2차 세계대전 만화' 시리즈로 유명세를 탄 굽시니스트, 날카로운 풍자로 시사 만화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가 블로그 공감에 연재하는 '본격 공군 옛날 이야기 만화'는 기구를 이용해 정찰했던 18세기부터 본격적인 공중전이 펼쳐지는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공군의 역사 이야기를 굽시니스트 특유의 유머와 상상력으로 전달하고 있다. **AF**



FA-50 무장발사

2014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블랙이글

2014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군IN  
아빠! 뭐해?



글  
중사 고미숙  
(홍보과)

사진  
중사 고미숙  
상병 김지완  
(홍보과)

## 공군가족 자긍심 함양 본격 임무체험 버라이어티

아빠!  
뭐해?

### 따뜻한 겨울

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수송대대 상사 김낙윤. 자녀 영서(8)

아빠의 얼굴에 / 아빠의 눈에 / 아빠의 미소 속에  
그리고 말 한마디 속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 부적여전

「아빠」 : 여기는 차량정비반.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곳이에요.

「영서」 : 와, 차가 많아요. 자동차들이 찾는 병원이 군요?

「아빠」 : 그럼. 공군 아저씨들의 안전은 아빠 손에 달려 있지!

「영서」 : 아빠, 여기 제 차도 안전점검 부탁드립니다!



### 차도 샤워룸

「아빠」 :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척기를 지나가면 버스가 깨끗해져.

「영서」 : 아, 나도 씻기 귀찮은데. 자동으로 씻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 안전제일

「영서」 : 아빠, 이게 엔진이에요?

「아빠」 : 맞아. 차가 안전하게 달려려면 이 엔진과 부품들을 잘 정비해야 해.

「영서」 : 보이지 않는 부품도 최상의 상태로 정비하러!

「아빠」 : 그래, 영서도 책상 정리할 때 안 보이는 서랍 속까지 잘 정리해야겠지?

「영서」 : 하~잉.



## 아빠에게 편지쓰기

「영서」 : 아빠에게 드리는 제 카드예요. “아빠 술 좀 그만 드시고, 영서랑 많이 놀아주세요.”

「아빠」 : 허허허. 지키기 어려운 부탁이지만 노력할게.



거창한 다짐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아빠 생각

제목 : 아빠 뭐해?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날씨 ☀️ ☁️ 🌧️ ❄️  
시 분 시 분



드디어 오늘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부대잡지에 “아빠 뭐해?” 라는 컨셉으로 아빠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촬영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힘은 들었지만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게 되어서 정말 뿌듯한 하루였다.

선생님/부모님 말씀



촬영을 도와준 작사근무지원단 정비중대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성  
편집실

사진  
상사 권 형  
(공보과)



# 친상아들

제작년 겨울,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빠에게 꿈이 생겼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꿈이라고 하더구나.

아빠에게 시간을 조금 주라. 우리 아들 한번 크게 안아 보고 싶지만 아직 담아두마...

아빠, 열심히 살아볼게... 많이 부족하더라도 힘을 내줘 아들”

아버지, 당신이 돌아와도 제 주변은 아무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똑같은 하루와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참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전화해서 말을 걸 수 있는 것도, 조금은 당신에게 짐을 덜어놓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아들도 군생활의 끝을 향해 달아가고 있고,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더 힘내서 더 멋있고 당당하게 달립니다. 아버지, 항상 제 곁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F**

〈제10전투비행단 병장 김진국〉



글 · 사진  
김관수  
(예비역 소령)



## 국가의 딸이 된 자랑스러운 나의 딸

나는 3군 본부가 위치한 전원도시이자 도·농 복합문화의 모범 도시이며 국방의 수도라고 부르는 계룡시에 살고 있다. 지금은 전역 10년차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있고 둘째 딸이 현재 공군장교로 근무하는 관계로 한편으로는 영원한 군인이자 군인 가족이 되었다.

나의 둘째 딸은 2000년 2월 서울에서 이사 올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귀엽기만 하던 녀석이 서울의 정든 친구들과 멀어진 뒤 전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게 적응한 것은 아마도 딸의 타고난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곳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한몫을 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찌되었든 지나의 딸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지역에 살면서 아빠가 군인이라는 자긍심과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언젠가의 일이다. 학교 공학관 옆에는 퇴역한 공군전투기(T-33) 1대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설명하는 제원 및 성능에 대한 안내판이 너무도 손상되어 불쌍사나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나의 딸은 사진을 찍어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민원을 올렸다. 공군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여 기존의 안내판보다 훨씬 더 좋은 자재와 디자인으로 개선해 놓은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공감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공학관을 오가면서 훼손되어 방치된 안내판을 보고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군 자녀라는 의식이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했던 것 아닐까?

그 이후 3학년이 되면서 딸은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랑스런 딸이 그 많은 진로 중 왜 하필이면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지 그 의중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내와 나는 어느 날 딸을 불러 진지한 논의를 했다. 왜 군인의 길을 선택하는지……. 하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일찍이 고교시절부터 아빠가 쓴 「군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벽에 걸려 있던 시를 이야기했다. 평소 군복을 입은 아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친구아빠도 군인이었으며 육·해·공 3군이 모여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군인이 되어 아빠처럼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멋진 장교가 되겠다.'고 했다.

이처럼 소신 있는 딸의 의견에 아내와 나는 공감하여 꽤히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한편 내심으로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내가 공작사령부(K-55기지)에 근무할 당시에는 미 여군을 많이 보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여군이 된다는 것이 제반 근무여건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딸은 4학년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 전 어느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제안했다. 우리는 가



까운 거리에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맛집을 들르고 전통놀이 체험과 거리를 보면서 가족사진 촬영도 했다. 딸은 나름대로 마음에 준비를 해가는 듯 걸로 내색은 안하지만 왠지 웃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간간이 초조하고 긴장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뒤 그야말로 합격통지서를 받았고 시간은 빨리도 지나갔다.

훈련입소 당일 교육사령부 연병장에는 입소자와 함께한 가족, 친지, 친구들로 구름인파를 만들었고 여기저기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야단들이다. 우리도 기념사진을 몇 장 촬영했는데 모두가 얼굴이 굳은 표정이다. 그렇게 긴장되고 불안하며 가슴시린 상태로 헤어져 집에 돌아오니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정병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훈련은 시작되었고 소대장으로부터 전해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훈련 중 발목염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열외하기도 했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날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보내지 말 것을……. 아내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일상을 보내는 중에 어느새 유격훈련을 마치고 108km 행군을 통한 종합훈련 점검이라고 한다. 후일담이지만 딸은 정말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그 어려운 훈련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정말로 최고의 훈련 수료자에게 수여되는 '최강전사상'을 받고 싶었는데 수상을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드디어 임관식 날이 왔다. 아내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장하다, 우리딸!' '정말로 고생 많았다!' 그것이 전부였고 정말 대견스러웠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스런 딸과 긴 포옹을 했다. 그러는 중에 나는 속으로 눈물이 났다. 나의 딸, 정말로 고맙구나.

지금 딸은 국가의 딸인 공군 중위가 되어 비록 초급장교지만 '말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있다. 어쩌다 만나면 군 관련 상황에 제법 대화가 된다. 생각하는 면이 완전 군인이 되었다.

이제 아내와 나는 딸의 말처럼 멋지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를 소망할 따름이다. 참고로 그 옛날 현역시절의 내가 쓴 「군인의 길」 시를 이 지면에 옮겨 본다.

**\* 군인의 길 \***

푸른 제복을 입고 있기에 우리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있다.

외침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조국과 민족의 승고한 사명 앞에 우리의 임무가 시작된다.

그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우리의 정신을 흐릴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만이 우리의 가치로 인정된다.

오늘도 푸른 제복의 자부심으로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위협과 넘봄도 거부하며 대한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수호한다.

푸른 제복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본분이 충성임을 또 다짐해 본다.

이어서 딸이 임관할 때 글로 남긴 「나의 다짐」도 아울러 옮긴다.

**\* 나의 다짐 \***

『예비역 장교이신 아버지처럼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며 솔직하고 정의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존경받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나의 딸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한다. 분명히 잘할 것이다. 딸의 강한 의지와 초심의 겸손함이 변함없기를 늘 기도하련다. 더불어 내가 사는 이곳, 군인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곳, 나의 딸이 국가의 딸로 자란 이곳, 딸도 자랑스럽고 지역도 자랑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내 삶의 배경이 되었기에 간단하게 참고로 소개한다. 2000년 봄 언젠가 아내와 함께 계룡대 복지센터의 목욕탕을 갔었는데, 목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갑자기 '큰일 났다'고 야단이다. 이유인 즉 '반지를 세면대 위에 놓고 왔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반지에 대한 돈 가격을 생각했겠지만 그보다는 결혼기념 반지였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 같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복지센터에 다시 가보자고 제안했다. 곧바로 아내와 함께 카운터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한 결과 누군가 반지를 습득 신고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선뜻 내어 주는 것이었다. 아내와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도 기뻐하였지만 그 느낌은 서로 달랐다. 아내는 찾았다는 안도감이 우선했겠지만 나는 어차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찾은 사실보다도 우리 군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 계룡대 가족들의 따뜻하고 순수하여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정말로 고마웠다. 아울러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우리 군인들이 모여 사는 이곳, 계룡 신도시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소망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지금까지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동안 여러모로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중의 최고는 역시 나의 둘째 딸이 공군장교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딸의 결정이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국가의 딸이 된 자랑스러운 나의 둘째 딸 파이팅!

감사합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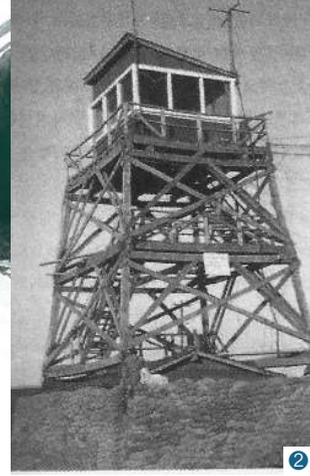
글 · 사진 제공  
이윤식  
(작가)



②4 조국공군의 초석이 된 항일항공열사들  
이윤철 권영근 영재



1



2



3



4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전쟁초기 1,580여 대, 연간 500~800대 생산)은 일주일 안으로 중국의 항공대(전쟁초기 300여 대 보유)를 섬멸하고 폭탄을 무제한으로 퍼부어 중국민심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잔인한 작전을 펼쳤으나 중국 항공대는 소련의 1,28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영웅적인 결사항전을 펼쳐 일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본이 제공권을 장악해 나갔다. 1941년 12월 미국지원항공대가 항일전을 전개하고, 1942년 히말라야 항공노선을 개척, 중국의 군수물자 지원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1943년 10월에는 중국항공대 제1, 3, 5대대와 미 항공대가 중·미연합단을 조직하며 일본군에 빼앗겼던 제공권을 장악해 나갔다. 이번 호에서는 이 시기에 활약하던 인물 중, 중국항공대 통신장교 이윤철(李允哲), 중·미연합항공대 제5대대 소속 김원영(金元英) 비행사, 중국항공대 비행사 출신이자 기계사인 김영재(金英在) 등을 소개한다.

**이윤철 항공통신사(通信士)**

항공 독립운동가 이윤철은 1926년 충북 청주(淸州)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3년 중국 항공대 통신학교를 나와 중국항공대에서 통신장교로 활약하였다. 해방 후 공군에 입대하여 역시 통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통신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1951년 제주기지의 관제탑도 이윤철(6·25전쟁기간) 대위가 직접 설계하여 2개월 만에 완공하였다. 강릉기지로 전진했을 때도 관제탑을 만들고 부대 통신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윤철 대위에 대해 증언을 해준 전(前) 공군 준장 이강화 장군은 이윤철 대위의 인상을, "독립운동가 출신이며, 겸손하고 유능하다. 손재주가 좋아 급박한 전쟁 중, 촌극을 다루는 시기에 비행사, 정비사 훈련을 대비하기 위해 그는 제주기지의 관제탑을 직접 설계하고, 2개월이라는 짧은

- ① 1951년 강릉기지에서 관제탑과 통신시험 중인 이윤철 대위(이강화 장군 소장)
- ② 1951년 강릉전진기지 초기 관제탑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제공)
- ③ 1951년 제주기지에서 통신시험 중인 이윤철 대위 (이강화 장군 소장)
- ④ 1951년 제주기지 관제탑(이강화 장군 소장)

기간에 작업하여 완공시켰다.”라고 전한다. 제주기지의 목제 관제탑이나, 강릉기지 관제탑은 미적으로 수려하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 목제 관제탑의 미니어처를 만들어, 전쟁시기의 선배 공군인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도 좋을 법하다.

### 김원영 비행사

김원영 비행사는 1919년 황해도 장연(長淵)에서 출생하였다. 일본의 1935년 중화민국재류불령선인단체의 정황(中華民國在留不逞鮮人團體의 情況) 보고서에는 김원영 비행사의 이름을 ‘金元瑛(銀錫明)’으로 기재하고, 남경 소재 중국 중앙군관학교에 응모하였다고 적고 있다. 1938년에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활약하다가 공군군관학교를 나와 비행사로 입문하였다. 1944년 미군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1944년 2월 인도에서 비행훈련을 추가로 받고 중미연합항공대에 배속되었다. 다만 공군본부(및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공한, 공군충열록(共軍忠烈錄)에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그의 소개가 있다.

“구양명(歐陽明) 열사/상해사람으로 중화민국 11년(1922년) 9월 6일에 태어났다. 공군군관학교 제16기 구축조(驅逐組/전투조종조)를 졸업했다. 공군 제5대대 제29중대 소위 3급 비행원으로 임명되었다. 34년(1945년) 3월 24일, 열사가 호남지(湖南芷/후난)에서 상음(湘陰) 지역의 일본군을 향해 출격하려고 이륙할 때... 유족으로 부모가 있다.”

김원영 비행사에 대한 관련 기록 중, 성과 이름의 한자와 주소 등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일본의 감시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장 이형걸 대령이 김신 장군과 있었던 인터뷰에서의 김신 장군의 증언과, 중국 『금교(金橋)』(2005. 10.) 한국어판(『중국 하늘을 날았던 한국인』, 남경시 항공친목회 비서장인 왕경(王瑩) 지음)에서 소개한 김원영 비행사의 순직 직전 활약상을 소개하면, 김원영 비행사는 어느 날 출격에서는 일본 대공포에 피격되어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장강(양자강)에 떨어졌지만, 수영을 잘하던 그는 본대로 귀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5년 3월 24일, 이륙 후 기고장으로 26세의 젊은 나이로 순직하였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보를 접한 임시정부 의정원의, 동년 4월 19일 기록에는, “고 김원영 공군중위에 대하여 삼 분간 묵념이 유하다.”라고 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의 순국비(碑)의 비명(碑銘)이 중국 남경 항일항공열사공묘에 전상국 비행사 이름과 함께 있다.

### 김영재 비행사

김영재가 중국에서 활약할 때는 ‘王英哉’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는 1911년 평북 용천(龍川)에서 태어났다. 1931년 중국으로 망명,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그는 1935년 항주와 남경비행학교를 졸업하여 비행사로 입문하였다. 최용덕 장군의 1951년 「중국에서 활약한 우리의 조인들」의 글에서는 “김진일, 장성철 등의 항공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김은제, 김영재, 최양성, 손기종, 염운동 등의 한국인 비행사가 있었으니”라고 하여 김영재를 비행사로 언급하고 있다. 1943년 8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 조례에서는, “중국에서 복무하는 비행사를, 최용덕, 이영무, 정재섭, 최양성, 권기옥 등으로, 기계사(機械士)로는 김진일, 장성철, 손기종, 이사영, 염운동, 왕영재” 등으로 소개하고 있어, 중국항공대에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 장개석 총통의 전용기 비행사 및 기상관제사(6·25전쟁 증언록, 공군본부, 2002/김정렬, 金貞烈回顧錄, 을유문화사, 1993)로도 활동하였고, 1943년 이후 광복군의 ‘공군건설 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해방 후에는 공군에 입대하여 ‘군수분야’에서 활약하였다. 1965년 7월, 54세의 나이로 일찍 숨을 거두었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중국에서 활약하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중국군의 장군,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으로 활약하며 전쟁(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해방 후에는 국군 창군에 참여했다. 육군에서 활약을 펼친 김홍일(金弘壹) 장군의 동생이기도 하다.

### 작가의 말,

#### ‘역사’를 쉽게 잊는 군대는 ‘신념’ 없는 군대로 전략할 수 있다

진실은 늘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진실을 ‘상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느끼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융(C.G. Jung)은 미국 인디언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인디언은 “백인들은 미쳤다.”고 했다. 융이 반문하자, “당신들은 생각을 머리로 한다.”라고 했다. 융이, “그럼 당신들은 어디로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인디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심장)로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를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망국과 항공독립운동, 분단과 공군의 창설, 전쟁을 거쳐 생사를 넘나들며 탄생한 공군의 역사에 담긴 ‘정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처절했던 고난과 극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AF**

⑤, ⑥ 김원영, 전상국 비행사를 언급한 중화민국의 공군충열록(1960년)

⑦ 중국 남경항일항공열사공묘(필자 촬영)



歐陽烈士明  
歐陽烈士明，上海市人，生於中華民國十一年九月六日。在空軍官學校第十六期驅逐組畢業。任空軍第五大隊第二十九中隊少尉三級飛行員。  
三十四年三月二十四日，烈士自湖南芷江駕機出擊湘陰日軍。起飛時，因機件故障，失事殉職。遺有父母。



# AIR-POWER REPORT

## 대만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자국산 전투기 IDF 징귀



대만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F-5의 노후화가 두드러지자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고 심하고 있었다. 정부는 미국에 F-16의 수입을 타진했다. 그즈음 지미 카터 행정부가 이끌던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화해 무드에 들어섰다. 모처럼 중국을 길들여가고 있는 마당에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대만 또한 중국과 수교를 맺는 국가와는 외교를 끊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자위 목적 또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종류에 한해서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F-16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대신 미국 정부는 그 대안으로 F-16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F-16/79, 또는 F-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노스롭 F-20 타이거샤크를 중화민국에 제의했다.

F-20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스펙을 보여주었으나 정작 미국에서도 도입될 전망이 없는 기종이었다. 게다가 연달아 두 번의 추락 사고를 일으켜 대만 공군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타이거샤크를 거부한 대만은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결정하게 된다.



### 국산 전투기 개발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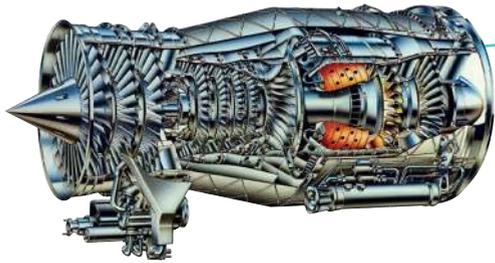
대만 자국산 전투기의 개발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개발의 주계약자는 항공산업 발전센터(현재 AIDC)로 미국 정부의 관할 하에 제너럴 다이내믹스(현재의 록히드-마틴), 개렛(Garrett), 웨스팅 하우스가 합류했다. 다양한 설계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건이 1985년 경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되었다.

이 차기 전투기는 F-16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체의 프로파일은 여러모로 F-16과 닮아 있었고, 대체로 당시의 각국에서 개발된 경전투기와 같은 스타일이 되었다. 차기 전투기의 이름은 1988년 당시 장경국(蔣經國) 중화민국 총통의 이름을 따서 징귀(經國, Ching-kuo)로 불렸다. 1989년 5월 28일에 첫 비행을 성공한 이후, 1994년에 정식 도입되었다. 서방측에서는 이 전투기를 가리켜 계획 명칭이었던 IDF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국산 방공 전투기(Indigenous Defensive Fighter : IDF)의 약자이다.

### 징귀의 기본 성능

징귀의 전체 디자인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참여한 덕분에 F-16과 유사한 점이 많다. 비행 제어 시스템 역시 F-16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에 조종사 옆에 조종간을 두는 사이드 스틱 방식이 채용되었다. 게다가 전유동식 수평미익, 풀 스펠 앞전 플랩과 같은 특징적인 면도 F-16에서 검증된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조종석에는 HUD와 좌우 양측에 다기능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고, 탐색거리가 150km인 FCS 레이더는 원래 F-20용으로 개발된 AN/APG-67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중 모드 펄스 도플러 레이더인 금룡 53형(GD-53)이 장착되었는데, 이 레이더는 록 다운/숏 다운 능력을 갖춘 대공, 대수상 모드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과 그중 1개 목표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F-124 터보팬 엔진

### ✦ 징귀의 심장, F-124

엔진은 징귀 개발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숙제였다. 대만 AIDC는 1982년, 미국의 민간 기업 개렛(Garrett)과 공동 출자해 ITEC(International Turbine Engine Corporation)이란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개렛 사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쓰이는 민수용 엔진을 개발한 업체로, 이미 1978년에 스웨덴의 볼보와 함께 비즈니스 제트기용으로 생산되던 TFE-731을 바탕으로 전투기용 엔진인 TFE-1042를 개발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였다.

징귀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고속 요격보다는 근접 공중전 능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엔진의 요구사항 역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초음속 성능보다는 아음속에서의 효율을 중시하게 되었다. 곧 TFE-1042은 새로운 요구조건에 맞춰서 재설계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징귀 전투기에 탑재된 TFE-1042-70(제식명 F-124)이다.

이처럼 징귀의 F-124 엔진은 민수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콤팩트하게 정리된 설계와 엄격한 품질 관리로 말미암아 충분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징귀의 최대 이륙 중량과 쌍발 엔진의 합계 추력은 모두 F-20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서 기본 비행 성능은 타이거샤크와 매우 유사하며, 스웨덴의 사브 39 그리펜과도 동급의 스펙을 지녔다.

대만의 국영기업과 미국의 민영기업이 합작으로 탄생된 F-124 엔진은 요즘 고등 훈련기로 잘 나가는 이탈리아의 아에르마키 M-346과 체코의 L-159도 구입해 탑재하고 있으며, AIDC는 ITEC을 통해 짝짤한 로열티를 챙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징귀의 전용 엔진으로 개발되었지만 연비가 좋고 추력비 중량비도 높은 ITEC F-124 엔진은 대당 250만 달러를 호가하며, 요즘 개발되는 소형 군용기들은 모두가 한 번쯤 채용을 염두에 두는 엔진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 ✦ 자국산 항공기 개발의 의의

징귀는 원래 256기가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개발이 진행되던 사이에 미 의회가 F-16의 수출을 허용했고, 프랑스로부터 닷소 미라주 2000의 판매 계약에 성공을 거두어 전체 생산 수는 130대로 감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추진으로 대만은 자국산 전투기 개발 능력과 생산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대만 공군이 도입해 운용 중인 미라주 2000이나 F-16 수입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힘을 얻었다는 점에서 징귀의 존재 의의는 대단히 컸으며, 현재까지 중화민국이 자체 개발한 항공기 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귀

징귀는 처음부터 해외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전투기가 아니었던 탓에 대만 공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기종이다. 따라서 대만 공군의 평가와 일선 조종사들도 어느 전투기 못지않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만족스럽게 운용하고 있다. 징귀의 도입 물량 감축은 성능 부족이라는 측면보다는 징귀보다 더 고성능인 프랑스, 미국제 전투기들이 연이어 도입되면서 축소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은 "국산 전투기"라는 카드가 있었기에 이 같은 해외의 고성능 전투기를 수입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징귀는 차기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여기서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F**



징귀 복좌형



징귀 CD형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글  
이미도  
(외화번역가,  
작가  
<똑똑한 식스팩>  
등 지음)



사진  
영화 홍보용  
홈페이지



## 마다가스카의 펭귄

7±2

무엇을 가리키는 수치일까요? 인간의 기억력이 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단기 기억량을 뜻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아미티지 밀러가 발견하여 그의 책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and Minus Two>에 소개한 것인데요, 이걸 언어에 적용해보면 인간은 '적게는 다섯 단어, 많게는 아홉 단어'의 문장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뜻이지요.

영화의 명대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명대사는 이 룰을 따르고 있거든요. "All the best people are mad."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명대사이지요. '모든 멋진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라는 뜻으로, 여섯 단어이지요. 하나만 더! "Think big to be big." 이것은 애니메이션 <터보>의 명대사로 뜻은 '크게 되려면 크게 생각하라' 이지요. 이번 칼럼을 위해 소개하고 싶은 명대사는

*"We are the elitest of the elite."*

우리는 교수 뺨치는 교수야.

입니다. 이게 나오는 영화는 <마다가스카의 펭귄 Penguins in Madagascar>입니다. the elitest는 the most elite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고요. 물론 어법적으론 틀리지요.

드림웍스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이번엔 사자, 기린, 하마, 원숭이 등을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카메오 캐릭터에 불과했던 펭귄 4총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그들은 모두 '단발 신사' 캐릭터이고, 항상 '블랙 앤 화이트' 정장을 고집하지요. 어쩌면 브랜드가 아르마니일지도 모르겠군요. 스키퍼가 대장이고, 나머지 동지의 이름은 리코, 코왈스키, 프라이빗입니다. 막내 프라이빗은 어떤 사연으로 3총사 펭귄에 끼어 4총사 멤버가 됐을까요? 이번 영화는 그의 출생 비밀을 공개합니다.

*"We've got each other."*

이 대사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동지' 라는 뜻입니다. 대장이 그 말을 할 때마다 프라이빗은 아무지게 다짐합니다.

*"I'll be a meaningful and valued member of this team."*

*밥값도 하고 쓸모도 있는 대원이 될게요.*

그렇게 뭉친 4총사는 '얼떨결에' 007처럼 첩보작전에 엮여들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악당이 등장해야 하겠지요? 이름은 옥토프레인! 그의 이름에서 문어(octopus)와 두뇌(brain)가 읽히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어는 유전공학 박사인데요, 그가 4총사를 납치합니다. 그의 야심은 세상의 모든 잘나빠진 펭귄을 잡아들여 그들을 돌연변이 펭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과거 그가 뉴욕 센트럴 파크 동물원에서 하늘을 찌를 듯 잘 나갈 때 그 동물원에 홀연히 등장한 꼬마 펭귄들이 관중들의 사랑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찬밥 신세가 됐던 옥토프레인이 복수의 칼을 갈며 나타나선 이렇게 외치는 것이지요.

*"You stole the show!"*

*너희들이 내 오빠부대를 다 뺏어갔단 말이다!*

펭귄 4총사를 납치한 옥토프레인은 그들을 비행기 짐칸에 태워 마다가스카 섬으로 추방합니다.

이번엔 '북풍(The North Wind)' 팀의 출연! 국제 특수공작 대원들로 구성된 이 팀의 대장은 시베리안 허스키인데요, 이번에는 그가 펭귄들을 납치합니다. 펭귄들이 요주의 사고뭉치인 옥토프레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한 '북풍' 팀이 뭔가를 캐내려고 납치한 것인데요, 대장 스키퍼가 다짜고짜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그러자 "My name is classified"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I'm not permitted to reveal my name for security reasons(보안상의 이유로 내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스키퍼는 그의 이름이 'Classified' 인줄로 착각하곤 그와 대면할 때마다 'Classified' 라고 부릅니다. '비' 밀리에 '공' 작 활동을 하는 '개' 니까 깔끔하게 줄여서 '비공개' 라 부르면 그럴듯하겠지요?

이제 영화는 대단원을 향해 고속 롤러코스터처럼 뽕뽕 달립니다. 옥토프레인은 세상 모든 동물원의 펭귄들을 납치한 후 뉴욕 센트럴 파크 공원에 방출합니다. 놈의 목적은? 모습이 기괴한 돌연변이 펭귄들이 뉴욕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트리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이 실현될까요? 물론 난관이 따라야 영화를 보는 재미가 커지겠지요. 그 지점에서 '단발신사 4총사 영웅' 이 창조적 인 방법과 수법으로 활약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이 작품에는 참 멋진 표현과 명대사가 많이 나온답니다. 늘 영어에 목말라 하시는 독자님들을 위해 보너스로 몇 개 소개합니다.

*Don't let anyone tell you what to do.*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삶을 살지 말라.*

*Ignore the haters.*

*남을 욕하고 씹어대기 좋아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Keep reaching for the stars.*

*큰 야망을 키우고 또 키워라!*

*Don't believe your own press.*

*악플이나 비평의 글에 상처받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동물들을 도와주라는 임무를 명받은 최고수 비밀 공작대원들의 활약상(an elite undercover task force that is dedicated to helping animals who can't help themselves)' 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저의 차기 번역 작품인 <홈 Home>도 많이 기대해주실 거죠? 외계별의 '도망자 생명체' 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별을 찾던 중 발견한 곳이 지구인데요, 지구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고 착륙한 그들의 어드벤처가 스토리의 골격이랍니다. 참, <마다가스카의 펭귄>에는 대한민국 어느 걸 그룹의 히트곡이 나온다는 깨알 정보도 빠트릴 수 없겠군요. **AF**



글·사진제공  
홍국화  
(패션 에디터)



사진  
브랜드 협조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본격적인 겨울이 성큼 다가셨네요! 크리스마스로 들쭉이는 도시 속에 정신없는 한 달이지만 2014년의 마지막이니 모두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시즌답게 '아우터'! 온라인 쇼핑몰부터 백화점까지, 쇼윈도를 가득 메우는 아우터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모두 '군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이번 시즌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들이니 장병 여러분의 안목으로 센스 있는 아우터를 골라보세요!

### 1. 더플코트

원조는 군복이었습니다. 거친 모직으로 만들어진 코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스포츠 코트로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모자가 달려있고, 단추 대신 끈으로 여미는 것이 특징이라 '떡볶이 코트'라는 애칭도 있죠!



로마이



비바스튜디오



화이트 블랭크 레이블



리타



비바스튜디오



커버넛

### 2. 피코트

앞 단추가 두 줄인 '더블 브레스티드'에 영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가 짧은 코트지요. 피코트도 군복이었다는 사실! 영국 해군의 선원용 코트였는데요, 편리함을 위해 단추 앞섶을 좌측이나 우측 어느쪽으로도 잠글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었지요. 넓적한 칼라가 붙어 있는 이유는 배 위에서 부는 바람에 훑날리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피코트의 가장 큰 특징은 옆구리에서 손을 넣는 '머프 포켓'이 특징이죠.

### 3. M65

우리가 말하는 '아상'은 미군에서 제작한 대중적인 아전 제킷인 M-1965를 개량한 것이죠. 제킷 앞 부분에 큼직한 주머니 두 개, 가슴 부분에 중간 크기의 주머니 두 개가 달려있고, 목 부분에는 지퍼가 달려 있어 모자나 두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다스티즈내버릿



썬우클레시



에스피오너지



브라운보레스



스테레오 바이널즈 콜렉션



크리틱

### 4. N3B

익숙하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혹한의 추위로부터 공군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작한 미군 항공점퍼의 이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케나다구스'나 '몽클레어'와 같은 디자인의 시츠가 되기도 했죠. 기장이 길고, 앞 지퍼를 가릴 수 있는 덮개가 있으며, 소매에 포켓이 달려진 것도 모두 군복에서 유래됐지요.



펠릭스



더 매드니스



백스

### 5. MA-1

미국 공군이 1940년대 말, 개발한 제트 파일럿용 점퍼 고공에서도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특수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좁은 조종석에서도 움직이기 쉽도록 기능적인 디자인이 많습니다. 좌우에 덮개가 있는 포켓이 달려있고 왼쪽 소매에는 담배와 펜 전용 포켓도 있죠. 앞, 뒤를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리버셔블용으로 만든 것이 시초인데요, 워급상황 시 구조가 쉽도록 선명한 오렌지 컬러 안감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죠!

### # 독특한 아우터에 입을 이너 아이템

캘러나 디자인에 크게 욕심내기 보다는 검정, 회색, 흰색과 같은 모노톤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매일 활용하기에도 편한 '에센셜 아이템'으로 꼽는 것들이죠. '파플러너드'의 헬리닉 티셔츠와 '모디피이드'의 단정한 데님, '우디'의 블랙 레이스업 부츠, 티셔츠와 색을 맞춘 '어반 스타터' 바니, 그리고 추운 손을 아끼기 위해 고른 '다스토티'의 스트링 백팩! 겨울 아우터를 고를 때 어떤 옷과 매치해야 할 지 고민되실 땐 이런 기본템에 집중하세요! **AF**



다스토티



우디



모디피이드



어반스타터



파플러너드



글  
윤미영  
(방송작가)



# PREVIEW

## 처절하고 슬픈 생존에 관한 보고서 〈퓨리〉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싸우는 미군 전차 부대 M4 셔먼 탱크 '퓨리'와 퓨리 안에서 동거 동락하는 5명의 대원들의 전투 과정을 담은 영화 '퓨리'. 육탄전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전차만을 사용해서 전쟁 영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다소 무모한 시도가 아닐까 의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전쟁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압도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액션장면을 여러번 보여준다. 그만큼 리얼하게 재현된 전쟁의 현장은 액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죽음의 한가운데서 살아남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절실한 본능을 맨얼굴로 마주하게 한다. 전투에서 승승장구 하지만 점점 공포와 불안이 짙어지는 대원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영화가 재현한 가장 리얼한 전쟁의 참상이다.

+ 독일군의 '티거탱크'와 'M4 셔먼탱크'의 전투신. 전투신 자체의 긴장감도 매우 밀도 높지만, 전쟁에서 작전과 지휘라는 것이 생존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를 가장 설득력있게 보여줬다.

-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훌륭하지만, 다른 전쟁 영화에서도 손쉽게 봤던 전형적인 캐릭터는 지루하다.



## 〈2014 이승환 연말콘서트 '진짜'〉

- \* 기간 : 12월 27일 ~ 28일
- \* 장소 :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진정 즐기는 공연의 진수를 보여주는 공연의 장인 '이승환'의 콘서트.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자타공인 한국 최고의 퀄리티를 갖춘 버라이어티한 쇼는 연말을 가장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 〈2014 컬투 크리스마스 - 두새끼 Show〉

- \* 기간 : 12월 23일 ~ 28일
- \* 장소 :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컬투'의 진짜 실력은 사실 방송보다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코믹 레파토리는 물론 빛나는 순발력까지 갖춘 품질 높은 코미디쇼. 여기에 깜짝 놀랄 실력의 컬투 노래와 춤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공연이다.



## 〈2014 성시경 콘서트 '겨울'〉

- \* 기간 : 12월 5일 ~ 7일
- \* 장소 : 잠실 실내체육관



눈 내리는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포근한 목소리. 성시경의 콘서트. 연인들의 연말 데이트 코스로 이보다 더 좋은 공연은 없다.





## 마왕을 보내며

그런 시절이 있었다. 가수가 앨범을 내면 그게 100만 장 팔리던 시절이. 30만 장 팔려서는 인기 가수라고 말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 2014년은 그 시절의 리바이벌을 보는 것만 같았다. 마치 tvN <응답하라 1994>의 후일담처럼, 1994년 인기를 끌던 서태지, 김동률, 이승환, 윤상, 유희열 등이 모두 새로운 음악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신해철도 곧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신해철은 얼마 전 솔로를 발표했었고, 곧 그의 음악적 여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그룹 N.EX.T의 앨범 녹음을 끝내 놓은 상태였다. 그가 돌아와 엄청난 음악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기별 일이었다. 지금 1990년대 뮤지션들이 음악을 한다는 것은, 한창때였던 20년 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응답하라 1994> 속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태지는 결혼과 함께 마흔 둘의 아이 아빠가 됐고, 김동률도 마흔을, 이승환은 올해로 50을 맞았다. 서태지는 '90's ICON'이라는 곡에서 전성기가 지난 그 시절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했고, 김동률은 '청춘'에서 여전히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미 지나버린 그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유희열의 새 앨범 <Da Capo> 역

시 현재 시점에서 지난 시절의 사랑과, 변해 버린 현재에 대해 노래한다. 1990년대의 그 뮤지션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누군가는 아예 음악에서 손을 뗐고, 누군가는 음악보다 가족과 아이에 더 많은 비중을 쏟기도 한다. 지금 이 뮤지션들의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단지 멜로디와 리듬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담겨온 삶의 궤적이다.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것이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삶을 살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거리낌 없는 인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신해철은 솔로와 밴드를 병행했고, 토크쇼와 리얼리티쇼에 나와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20년 경력의 뮤지션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아닌 tvN <오페라스타>에서 오페라를 부르며 심사를 받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많은 말을 했었다. 마지막 방송이 된 JTBC <속사정 살롱>에서도, 그는 출연자 중 유일하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신 역시 젊은 시절 마음껏 살았고, 그 자산으로 좋은 뮤지션이자 뛰어난 DJ, 좋은 남편과 아버지일 수 있었으니 말이다. 20여 년 동안 마음껏 살고, 여

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 행복한 삶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기 시작했었다. 그 답을 음악으로, TV 토크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해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태지는 유희열과 함께하던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리허설을 중단하고 그가 누워있던 병원으로 갔다. 1990년대 뮤지션들에게 함께 하던 동료의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1990년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 단했던 청춘들이 중년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며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래서 1990년대에 데뷔한 뮤지션들, 또는 이 '90's 아이콘' 들은 과거 동경의 대상에서 이제 관찰이자 공감의 대상이 되었다. 잘 살고 있을까라는 궁금증. 또는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 그래서 나도 곳곳이 살아가야겠다는 의지와, 나도 누군가에게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존재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기를. **AF**



글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  
IZE 편집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OPINION

생각하는  
그림



글  
중위 정상근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 가깝고도 먼 황금까지의 거리



1

사금 채굴자들 사이에서 미국 서부로 황금을 찾아 떠난 '다비'라는 농부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매일 땅을 조사하던 다비는 땅 속에 묻혀 있던 반짝거리는 광석을 발견했습니다. 다비는 그 자리를 몰래 덮어두고는 거금을 들여 채광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2



다비는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광석이 제련 공장으로 운송되기 시작했고, 초반에 채굴한 광석만으로도 투자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다비의 금광이 미국 서부 로라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광맥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금광의 광맥이 사라졌습니다. 다비는 더 깊게 땅을 파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느낀 다비는 결국 금광을 포기하고 모든 채광 설비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4



한편, 싼 값에 채광 설비를 매입한 폐품 수집상은 다비가 포기하고 떠난 금광을 다시 한 번 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대한 광맥을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서부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5

그런데 폐품 수집상이 찾은 광맥은 놀랍게도 다비가 작업을 중단한 곳으로부터 겨우 3인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는 모두 광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비는 좌절 앞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는 점이지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지금 겪고 있는 좌절은 성공 바로 직전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AF**

6



# 담벼락

그 날은 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다. 푸른 꿈을 가지고 눈이 내리던 날 기분 좋게 갔지만 그 후로 몇 달간 집에 못가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인지도 꿈에도 몰랐다. 다른 더 편한 삶을 살길 바라셨던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보자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고 바짝 얼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걸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한다.



## 겨울의 추억

또다시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사관학교 가입교 날이다. 그날은 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다. 푸른 꿈을 가지고 눈이 내리던 날 기분 좋게 갔지만 그 후로 몇 달간 집에 못가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인지도 꿈에도 몰랐다. 다른 더 편한 삶을 살길 바라셨던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보자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고 바짝 얼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걸 보시고 많이 우셨다고 한다.

2004년이었던가? 기억이 흐릿하지만 청주에 100년 만의 폭설이 내렸을 때였던 적이 있었다. 폭설이 내려 연병장에 눈이 엄청 쌓였는데 문제는 사관학교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었다. 그 넓은 연병장에 눈이 무릎까지 쌓여 주말동안 외출금지까지 당하고 눈을 치웠다. 치울 땐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치웠는데, 오래된 야전삽으로 얼음을 깨다가 야전삽이 부러진 생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눈을 치운 생도들은 거짓말을 조금 보태 3분의 1이 감기에 걸렸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선배들이 다들 감기에 걸려 콧물을 흘쩍이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현재 내가 근무하는 곳은 원주다. 따뜻한 남쪽에서만 근무하다가 지난해 초, 원주로 전속을 왔다.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체감온도가 -20도를 넘었는데, 동정복이 너무 추웠다. 강원도의 겨울은 남쪽 겨울과 차원이 다르구나 싶었다. 정말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였다. 하지만 원주는 겨울이면 스키장도 가깝고 겨울바다도 멀지 않고, 겨울을 즐기기에 괜찮은 근무지인 것 같다. 이곳 겨울을 한 번 더 지내면 나는 다른 곳으로 또 전속가야 한다. 그 전까지 강원도의 겨울을 마음껏 즐겨야겠다.



제8전투비행단 대위 오세진



## 겨울 그리고 입교식

2월 17일 월요일, 영천의 칼바람은 매서웠다.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친 아들이 드디어 사관생도로서 입학하는 날이었다. 가입교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아들은 추운 날씨 속에 더 아위어 보였다. 그런 아들을 보며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치고 나 또한 속으로 울었다.

연병장 여기저기서 제 부모에게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고의식은 눈물의 바다였다. 아들은 충성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간단히 신고식을 대신했다. 눈물 맺힌 눈언저리에서 기초군사훈련의 힘들었던 여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사실 아들은 지방 국립대를 다니다 육군3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다.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니면서 녀석은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육군3사관학교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준비해 간 삼겹살만 구우며 말을 아꼈다. 대신 아들 얼굴 한 번 본 것에 만족하고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사관학교 생활을 훌륭하게 영위할 것과 졸업 후에는 유능한 장교가 되어 그야말로 호국의 간성이 되기를 속으로 응원하며 빌고 또 빌었다.

짧게만 느껴진 가족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천의 겨울은 아들을 남겨 두고, 갔던 길 되돌아오는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팠다.

영천의 겨울은 그렇게도 모질고 야속했다.

갈빛대 같은 앙상한 겨울 가로수를 보면 올 2월의 겨울이 나에게 진한 여운으로 다가온다.

곧 겨울이다.



제82항공정비창 준위 이종석



## 따뜻한 방

겨울, 물이 얼어붙고 눈이 내리는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계절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겨울을 나곤 한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장롱 안에 묵혀 두었던 두터운 외투와 이불을 꺼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리는 순간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기겁을 하고 “엄마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보일러 좀 켜봐”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했다. 겨울철이라 A/S접수가 몰려 1주일 뒤에나 수리 기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 없이 1주일을 지내야 한다니. 나에겐 정말 천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가족이 한데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난방 기구를 들고 한방에 모여 있으면 좀 낫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 모두 큰방에 모여 앉아 난방 기구를 틀었다.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도 남아 방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한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은 채 1시간 정도가 흘렀다. 아버지는 굴이나 까먹자고 말문을 여셨다. 굴을 까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처럼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눈 녹듯 녹아내렸다. 지금도 겨울이 되면 한방에 모여 앉아 굴을 까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곤 한다.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일병 오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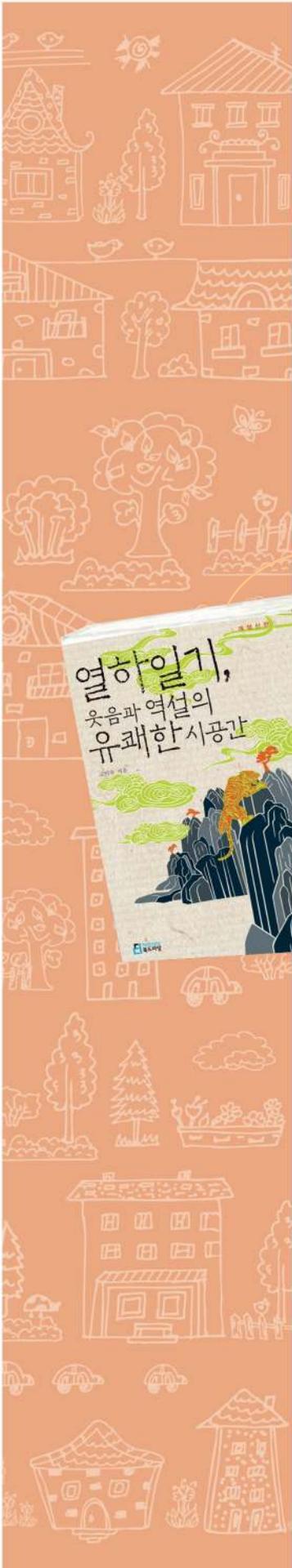
※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년 1월호 공모 주제는 '전화'입니다.



글  
김미라  
(KBS 방송작가)



# 책마을



나의 조카는 고전을 전공한다. 가장 재기발랄한 아이가 가장 고루한 전공을 택했다는 것이 의외였다. 그런데 조카를 통해 가끔 듣는 고전 속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새롭다. 앞으로는 가장 각광 받는 전공이 되지 않을까, 심을 정도로 고전에서 찾아낸 이야기들은 흥미롭다. 그렇게 만나게 된 책이 고미숙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었다.

이 책은 새로운 버전의 '열하일기'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1.0이라면 그동안 학자들이 전해준 '열하일기'가 2.0 버전이고, 고전평론가임을 자처하는 고미숙의 사유를 통과한 이 유쾌한 책이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오래된 책과 역사 속에 박제된 인물로 남았던 연암을 웃음의 달인으로, 우정의 달인으로, 노마드의 달인으로 재해석한다. 다산 정약용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연암도 인간적인 모습을 한 거인으로 부활했다. 세계적인 평론가 수전 손택은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썼지만, 나는 고미숙이 재조명한 유쾌한 천재 연암의 모습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그녀의 해석에 찬성한다!

호기심 많고, 유쾌하며, 또한 더없이 유연한 천재였던 연암은 1780년, 청나라로 가는 외교사절단에 섞여 북경으로 떠난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특명을 받아 만리장성 너머의 열하까지 가게 된다. 이 머나먼 여정의 외중에 연암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꼼꼼하게 세상을 관찰했고, 여행 작가처럼 구석구석을 다니고 기록했으며, 미래학자처럼 시대를 통찰했다. 앞선 문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며 꼼꼼하게 기록했고, 우리와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차이가 만드는 현상과 사유를 폈다. 유쾌한 천재다운 잠행과 교류를 읽고 있으니 '조선시대 판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저자 고미숙이 발휘한 재해석의 힘이다. 저자는 책 속에 이렇게 써놓았다.

“연암은 서재에 앉아 머리로 사유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길이 곧 글이고, 삶이 곧 여행이었다. 연암이 지나갈 때마다 중원천지에서 침묵하고 있던 단어들이, 문장들이, 그리고 이야기들이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암은 그것들을 무심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절단, 채취' 했다.”

저자는 연암이 사절단에서 유일하게 공식 직책이 없는 '여행자'였던 점을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은 남들과 다른 것을 보았고, 남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군인들이 야간행군을 하듯 열하로 가는 연암의 여정은 고된 것이었지만, 그 여정 틈틈이 발휘한 재치와 코믹한 에피소드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를 미소 짓게 한다.

압록강을 건너며 연암 박지원은 묻는다. '그대 길을 아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길은 저 강과 언덕 사이에 있다'고. 통일의 염원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에게, 한 해가 가고 오는 이 시점에 새삼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그대, 길을 아는가' 라고 묻는 연암의 목소리가... **AF**



월간 「공군」 1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 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1. 지친 장병들의 힐링을 위해 올해 1월, 제1전투비행단에 조성된 공군 최초의 소규모 복합전시 공간의 명칭은?
2. 1943년 중국 항공대 통신학교를 나와 중국항공대에서 통신장교로 활약하다, 해방 후 공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통신의 체계를 마련한 항공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3. 원래는 군복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 스포츠 코트로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일명 '떡볶이 코트'라 불리는 이 코트는 무엇일까요?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 ·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온라인 신고 [www.dsc.mil.kr](http://www.dsc.mil.kr))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1. FA-50 2. 지식재산권 3. 대사중후군

퀴즈 당첨자  
충북 보은군 공요섭 ● 부산시 북구 윤호경 ● 충남 공주시 추득로  
경기 수원시 한동근 ● 경남 창원시 마이진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 21-9229



## 백일장 스물다섯번째 주제 전화

\*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leedh63@af.mil  
인 터 넷(E-mail) afpaper@naver.com  
전화번호 042-552-6943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2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독자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해  
멀티비타민 '네이처 밸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L

## Letters to the editor



**이춘임 경기 포천시** 월간 「공군」은 '가을'이다.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10월호 <엄마! 뭐해?>에 소개된 서인정 하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같은 여성으로서 또 어린 자녀를 둔 직장맘으로서 깊은 공감을 하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예쁘게 키우며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 내는 서 하사님의 모습을 보며, 싱그러운 가을 햇살만큼이나 행복했습니다.

**편집실** 10월호에는 특별히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든든한 군인으로서 활약하는 여군 장병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박지근 부산시 사하구** 월간 「공군」은 '백과사전'이다. 평소 공군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 나온 T-50 기사를 읽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잘 알 수 있었고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FA-50의 활약도 무척 기대되네요. 대한민국의 하늘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든든합니다.

**편집실** 국산전투기FA-50의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공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테니 계속 응원해 주세요.



**서순영 부산시 해운대구** 월간 「공군」은 '다큐멘터리'다. 매월 만나는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인들의 활약상과 나날이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병영생활의 일부를 엿볼 수 있어 재밌습니다. 10월호에 제주가 낳은 항일비행사 임도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월간 「공군」에서 '인문학 강의'를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실** 월간 「공군」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병영생활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서순영 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문학 강의는 2015년에 게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상병 제3훈련비행단** 월간 「공군」은 '무궁화호'다. KTX처럼 빠르진 않더라도 칸칸마다 색다른 이야기들이 탑승해서 공군 장병들에게 달려옵니다. 요즘 '비정상회담'이라는 TV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마침 <Air Supply>에서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매월 트렌디한 주제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편집실** 무궁화호도 나름 매력이 있지만, KTX보다 빠르고 편리한 월간 「공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이 만난 스타  
18page

